

한국판 열정 척도의 타당화 연구

홍 민 성 정 예 슬 손 영 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열정의 이원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Vallerand 등(2003)이 제작하고 Marsh 등(2013)이 수정한 열정 척도(Passion Scale)를 한국판으로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대학생 118명과 200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으로 구성된 열정의 2요인 구조를 잠재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요인 대안모형과 비교할 때 2요인의 적합도가 우수하게 나타나 한국판 열정 척도의 2요인 구조를 확정하였다.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여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기본심리욕구, 자아존중감 및 열정활동의 정체성 투영, 웰빙 관련 변인과의 상관이 예상된 방향대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열정의 유사개념인 내적 및 외적 동기와 의 변별성 분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모두 구별되는 4요인 모형이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열정의 증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열정은 몰입과 정서에 대해 내적 및 외적 동기를 통제하고도 유의한 증분설명량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판 열정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의의와 한계점 및 추후연구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요어 : 열정, 조화열정, 강박열정, 열정 척도, 척도 타당화

[†] 교신저자: 손영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E-mail: ysohn@yonsei.ac.kr

열정이란, “정체성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매우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여 정기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활동에 대한 강한 이끌림”(Vallerand, 2015, p.33)을 말한다. 심리학 분야에서 열정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Vallerand 등 (2003)에 따르면 열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어떤 열정을 갖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화열정(Harmonious Passion)은 좋아하는 활동이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도 이에 집착하지 않고 삶의 또 다른 측면과 균형을 이루는 열정인 반면 강박열정(Obsessive Passion)은 좋아하는 활동을 통한 쾌락이나 자아존중감 등 다른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수반성을 가진 열정으로, 정체성에서 열정이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개인은 이 활동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된다(Vallerand et al., 2003).

10년 전부터 해외에서는 일, 게임, 환경, 연인 관계, 운동, 도박, 여가활동 등 풍부한 주제로 열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매우 적으며, 타당하고 활용 가능한 척도의 부재로 인해 주로 스포츠, 무용 등 예체능 분야에 한정되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열정은 충실히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개념이므로,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확장시킬 때 보다 의미를 갖는다.

특히 열정 관련 연구는 우리 사회에 진정 강조되어야 할 열정의 형태에 대한 통찰을 줄 수 있는 주제이다. 지난 몇 년 간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는 열정은 조화열정보다는 강박열정에 가까웠다.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에 미쳐라” 류의 마케팅이 유행처럼 번지며 젊은이들에게 끊임없이 열정을 가질 것을 종용하였으며, 김난도(2010)는 그의 저서에서 “passion”이라는 단어가 아픔이라는 의미의 “passio”를 어원으로 한다는 것을 소개하며 열망에는 아픔이 수반되기 마련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고통스럽지만 한 가

지에 매달리는 열정, 즉 강박열정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강조해 온 측면이 있다. 고통스러운 열정은 성공을 위한 필수 덕목인 것처럼 묘사된 반면, 열정이 없는 것을 마치 결함처럼 느끼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사람들의 강박열정을 부추기고 심화시켰다.

열정은 분명 강력한 동기적 요소로 작용하여 어떤 분야에서의 성공에 중요하다. 그러나 열정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강박열정은 부정적 서, 삶의 다른 부분과의 갈등, 기본심리욕구의 불충족 등 삶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Vallerand, 2015; Vallerand et al., 2003; Vallerand & Houffort, 2003). 수행에 대해서도 강박열정이 결코 조화열정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Bonneville-Roussy, Lavigne, & Vallerand, 2011; Vallerand, Mageau et al., 2008; Vallerand et al., 2007). 삶을 불균형적으로 만들며 한 가지에만 매달리는 열정이라 하여 그 고통에 상응하는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조화열정은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수행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nneville-Roussy et al., 2011; Vallerand, Mageau et al., 2008; Vallerand et al., 2007).

많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열정은 단일의 개념이 아닌 강박 및 조화열정이라는 두 차원이 존재하며 대조적인 심리적 결과가 나타난다. 특히 강박열정은 개인의 삶 및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사회의 열정 개념에는 조화열정의 요소는 부족한 반면 강박열정의 요소를 바람직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는 경쟁적이고 성공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열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은 반면 한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한 학계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 국내의 열정 관련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진정 장려해야 할 건강한 열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통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 및 학문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Vallerand 등(2003)이 개발하고 Marsh 등(2013)이 수정한 열정 척도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였다. 본 연구는 신뢰롭고 활용성 높은 척도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국내에서 열정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Vallerand 등(2003)의 영문판 열정 척도를 번역·역번역 및 간단한 설문조사를 거쳐 한국어 번안본을 완성하고자 한다. 둘째,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잠재적 요인구조를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증할 것이다. 셋째, 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열정의 하위차원인 조화열정 및 강박열정에 관련된 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증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할 것이다. 넷째, 열정과 유사한 심리학적 개념인 내적 및 외적 동기와의 변별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증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내적 및 외적 동기를 통제하고도 열정이 관련 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는지 검증할 것이다.

열정

열정은 활동을 ‘매우 좋아하고(liking or love)’, ‘중요하게 생각하며(importance or valuing)’,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investment of time and energy)’ 한다는 3가지 요소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Vallerand 등(2003)은 열정을 한 개인의 정체성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따라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이원론적 모델을 정립하였다.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의 차이는 열정의 형성 과정에서 기인한다. 열정 개념의 근간이 되는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에 따르면 개인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구성된 기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의 만족을

위해 여러 활동에 몰두하는데(Deci & Ryan, 2000; Vallerand et al., 2003에서 재인용), 이 중에서도 개인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활동을 특별히 선호하여 정체성에 내면화시키게 되면 이것이 열정으로 발전하게 된다(Aron, Aron, & Smollan, 1992; Vallerand, 2015). 이때 조화열정이 발달되는지, 강박열정이 발달되는지는 내면화 과정이 이루어질 때 개인이 놓인 환경과 그의 성격적 특성에 달려있다. 내면화 과정이 기본심리욕구를 만족시키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예, 아이가 열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부모가 자율성을 지지함) 조화열정이,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불안정하게 하는 통제된 방식(예, 부모가 아이의 열정활동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달함)으로 이루어질 경우 강박열정이 발달하게 된다(Mageau et al., 2009).

강박열정의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추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열정 활동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기본심리욕구를 채워주는 원천이지만 강박열정을 가진 이의 기본심리욕구의 충족도는 조화열정보다 떨어진다. 이는 이들이 조화열정과 달리 자아의 취약성으로 인해 활동을 하는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예, 활동의 순간을 온전히 즐기기보다는 활동의 결과 및 수행 수준에 신경을 쓰는 행동). 그러나 강박열정을 가진 사람은 다른 활동에서도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불안정하게라도 욕구 충족이 가능한 열정 활동에 더 의존하는 성향을 보인다(Vallerand, 2015). 이처럼 열정활동 내, 외 어느 쪽에서도 기본심리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서로 영향을 주어 강박열정을 형성, 유지하고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강박열정이란 부모 또는 환경적 영향으로 어떤 활동이 강요되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Vallerand(2015)는 열정이 발달되기 위한 첫 단계인 활동 참여(activity engagement)는 자율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아

이가 스스로 그림을 그려보고 이를 좋아하게 되기 전에 부모가 그림 그리기를 강요한다면 아이는 강박열정이 아닌 외적 동기에 의해 그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강박열정의 형성은 이 열정의 첫 단계를 지나 아이가 그림 그리기에 스스로 더욱 몰두하게 되었을 때, 주변 환경이 통제적으로 작용할 때라고 볼 수 있다. Vallerand(2015)는 이러한 단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아이가 그림에 상당한 흥미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부모나 교사가 아이의 재능을 이끌어낸다는 이유로 활동에 개입하기 시작하거나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적절한 예시가 될 것이다.

셋째, 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통제적 내면화에 의해 발달되는 강박열정이라 하더라도 단지 활동에 대한 강박 및 의무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의 기본 3요소를 갖춘 상태를 전제로 한다. 즉 강박열정 역시 조화열정과 마찬가지로 열정활동을 매우 좋아하고 재미를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언급했듯이 강박열정은 조화열정과 달리 활동 자체보다는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 등 활동 외부의 무엇인가를 충족하고자 하는 수반성이 강하기 때문에 활동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특성이 있다.

자율적 또는 통제적 내면화 과정의 결과로, 조화열정을 가진 사람은 열정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잘 조절하여 활동의 맺고 끊음에 있어 자유로우며, 열정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삶의 다양한 측면에 눈을 돌릴 줄 알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강박열정을 가진 사람은 하나의 활동에서만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경험하기 때문에 열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 조절이 어려우며 마치 활동에 지배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순기능적인 결과와 관련된 조화열정과 달리, 강박열정은 자아의 취약성 및 자존감의 수반성으로 인해 방어적인 특성을 보이며 부정적, 삶의 다른 부분과의 갈등, 반추, 기본심리욕구의 불충족, 낮은 삶의 질 등 역기능적인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Vallerand., 2015; Vallerand et al., 2003; Vallerand & Houliort, 2003).

열정 측정도구

열정 척도는 Vallerand 등(2003)이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으로 구성되는 열정의 이원론적 모형을 기초로 하여 개발하였다. 연구자들은 대학생 539명에게 매우 소중한 활동을 생각하게 한 후 열정의 두 유형을 반영하도록 개발된 7점 척도 문항들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열정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을 무선적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284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이 가정했던 대로 열정의 2요인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문항을 제거하였고, 각 요인당 7문항으로 총 14문항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235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76, N=235) = 171.70$, $NNFI = .91$, $CFI = .93$, $RMSEA = .07$ 으로 모든 수치가 적절하여 열정 척도의 2요인 구조를 확정하였다.

열정 척도의 문항들의 내용은 조화열정의 경우 열정활동에 대한 욕구의 조절이 가능한 상태이며 열정활동이 다른 활동과 조화를 이루는 특성을, 강박열정의 경우 열정활동에 대한 강박적 느낌을 강조하였다(Vallerand, 2015). Vallerand 등(2003)은 열정의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열정진단 기준척도(Passion Criteria)도 함께 제작하였는데, 이는 열정의 정의(활동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 좋아함, 가치평가, 정체성 투영, 열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후 14문항으로 제작되었던 열정 척도는 12문항으로 수정되었고 Marsh 등(2013)이 그 심리측정적 특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열정 척도는 100개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고 일, 운전, 게임, 정치, 종교,

환경, 연인관계, 운동, 도박, 여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대상으로 한 최소 20개의 연구에서 열정의 2요인 구조가 검증된 바 있다(Vallerand, 2015).

국내에서 타당화된 열정 척도로는 한국판 도박열정 척도(김영훈, 이영호, 2004)와 무용열정 척도(유진, 정꽃님, 2008)가 있다. 국내의 열정 관련 연구는 주로 스포츠 및 무용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무용열정 척도(유진, 정꽃님, 2008)를 수정하여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척도는 특정 활동에 대한 열정을 측정하도록 제작되었으므로 보편성에 대한 문제와 Vallerand 등(2003)의 원 척도를 번안한 것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Vallerand 등(2003)의 원척도가 아닌 Marsh 등(2013)의 척도를 타당화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Vallerand 등(2003)의 열정척도는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의 문항과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 문항 등 문제가 있었던 반면 Marsh 등(2013)의 수정된 열정 척도는 Vallerand 등(2003)의 열정의 이원론적 개념을 보존하면서도 보다 알기 쉽고 간결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원 척도에 있었던 “내게 이 활동은 하나의 열정이며, 나는 그 열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조화열정)”, “나는 이 활동에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강박열정)”와 같이 그 의미가 다소 알기 힘들거나 문장이 긴 문항이 수정된 척도에서는 삭제되고,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활동만 할 것이다(강박열정)”와 같이 간결하고 알기 쉬운 문항이 추가되었다. 총 문항의 수도 14문항에서 12문항으로 축소되었다.

둘째, 수정된 열정 척도에서는 조화열정 및 강박열정을 나타내는 문항의 구별이 뚜렷해졌다. “나는 이 활동에 푹 빠져있다”와 같이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 문항이 삭제되었다. Vallerand 등(2003)의 척도에서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의 상관이 .46이었던 반면 Marsh 등(2013)에서는 .18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수정된 척도가 조화 및 강박열정의 개념을 더욱 뚜렷하게 변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현재 해외의 열정 관련 연구는 대부분 수정된 척도를 사용하여 원 척도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rsh 등(2013)이 수정한 열정 척도를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열정의 심리적 결과

Vallerand 등(2003)에 따르면 열정을 가진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피폐한 삶을 살 수도 있으며 이는 주도적으로 발달되는 열정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은 모두 열정의 하위차원이지만 차별적인 내면화 과정으로 인해 서로 다른 심리적 결과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정과 관련된 주요 심리적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결과들을 기준으로 삼아 한국판 열정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기본심리욕구

열정활동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돕지만, 열정 유형에 따라 이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가 다르다. 활동을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조화열정과 달리 강박열정을 가진 이의 경우 자존감의 수반성에 의해 성공적인 수행에 치중하게 되므로 기본심리욕구를 완전히 충족하기 어렵다(Vallerand, 2010, 2015).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하는 조화열정과 달리, 강박열정은 열정활동 외 분야에서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부적응적인 열정이므로(Vallerand, 2015) 삶 전반적인 기본심리욕구의 충족 정도는 조화열정보다 떨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열정과 기본심리욕구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 및 열정활동의 정체성 투영

조화열정과 대비되는 강박열정의 근본적인

차이 중 하나는 자아(self)의 취약성에 있다. 강박 열정을 가진 사람은 열정활동을 그들의 정체성에 많은 부분 투영하며, 자아존중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열정활동에 크게 의존하는 자존감의 수반성(self-esteem contingencies)을 갖고 있다(Mageau & Vallerand, 2007; Mageau et al., 2009; Stenseng & Dalskau, 2010; Vallerand et al., 2003). 강박열정을 가진 사람은 열정활동에서의 수행이 자존감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주며, 수행에서의 실패를 자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연구들(Bélanger, Vallerand & Kruglanski, 2013; Mageau, Carpentier, & Vallerand, 2011)은 강박열정의 취약한 자아와 불안정한 자아존중감을 시사한다. 반면 조화열정을 가진 사람은 정체성에 열정활동이 중요하지만 지배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통합된 자아(integrated self)를 형성한 상태이므로 안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조화열정은 높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이 나타났고, 강박열정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거나 관계가 없었다(Lafrenière, Bélanger, Sedikides, & Vallerand, 2011; Mageau et al., 2011; Stenseng & Dalskau, 2010; Vallerand, Ntoumanis et al., 2008).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열정과 자아존중감, 열정활동의 정체성 투영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웰빙 관련 변인; 정서, 삶만족, 몰입, 상충, 반추, 열정활동에 투자하는 시간

조화열정의 바탕이 되는 자율적 내면화는 열정활동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게 해주므로 긍정정서, 높은 집중과 몰입 경험(flow)과 관련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높은 삶만족으로 연결된다(Mageau & Vallerand, 2007; Mageau, Vallerand, Rousseau, Ratelle, & Provencher, 2005; Vallerand, 2010; Vallerand et al., 2003). 반면 강박열정은 통제적 내면화로 인해 경직되고 지속적인 활동 양

상이 특징적인데, 활동을 하지 못할 때나 하고 난 뒤에도 활동에 대한 내적 충동이 계속된다. 이런 특성은 집중 및 몰입하지 못하는 상태와 반추(rumination)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삶의 다른 부분과의 갈등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여 높은 부정정서와 낮은 삶만족으로 연결된다(Mageau, Carpentier, & Vallerand, 2011; Mageau & Vallerand, 2007; Marsh et al., 2013; Ratelle, Vallerand, Mageau, Rousseau, & Provencher, 2004; Rip, Fortin, & Vallerand, 2006; Vallerand, 2010; Vallerand et al., 2003). 또한 강박열정은 다른 활동을 해야 할 때도 열정활동을 멈추고 싶어하지 않는 집착적인 성향 때문에 열정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의 절대량이 많을 것이며 Houliort, Philippe, Vallerand와 Ménard(2013)도 강박열정과 열정활동에 투자하는 시간과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열정과 웰빙 관련 변인들인 정서, 삶만족, 몰입, 상충, 반추 그리고 열정활동에 투자하는 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열정과 유사한 개념: 내적 및 외적 동기

한 구성개념이 그 효용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다른 유사개념과 중첩되지 않는 고유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열정은 다소 최근에 정립된 개념이기 때문에 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쓰일 실증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타 개념과의 변별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열정과 가장 유사한 구성개념 중 하나는 바로 내적 및 외적 동기(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인데, Ryan과 Deci(2000)는 내적 동기는 대상 자체에서 오는 본질적인 즐거움과 흥미 때문에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외적 동기는 대상 외부에 있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내적 동기는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며 온전히 행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인 반면, 외적 동기는 활동이 수

단적 가치를 지니며 내적 동기에 비해 행위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동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Ryan & Deci, 2000).

열정과 내적 및 외적 동기는 특정 활동을 상징하고 이를 향한 행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내적 동기는 내면화 과정과 무관하며 주로 단기적인 활동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열정과 다르다(Koestner & Losier, 2002; Vallerand, 2015에서 재인용). 또 열정은 활동에 대한 사랑과 높은 가치평가를 내포하는 개념인 반면 내적 동기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고, 열정은 긍정적, 부정적 결과 모두와 관련된 반면 내적 동기는 항상 긍정적인 심리적 결과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Vallerand, 2015). 또한, 외적 동기는 활동에 대한 사랑 및 즐거움을 전제하지 않고 활동 외부의 결과가 목적이란 점에서 근본적으로 열정과 다르다(Vallerand, 2015). 그러나 이와 같은 구분은 주로 이론상으로만 논의되어 왔으며 실증적으로 두 개념의 변별성을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관련 연구로서 Vallerand 등(2003)은 내적 및 외적 동기를 통제된 뒤 긍정 및 부정정서와 활동을 지속할 의도에 대해 열정의 유의한 증분설명량을 확인하였고, Houliort 등(2013) 역시 내적 및 외적 동기를 통제된 뒤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이 각각 일만족과 우울을 예측함을 밝혀내었다.

위와 같은 연구는 종속변인에 대한 열정의 추가 설명량을 본 연구들로서, 열정과 동기의 요인구조에 대한 다양한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비교한 연구는 아직 실시된 바 없다. 또한 그 속성상 유사해 보이는 조화열정과 내적 동기, 강박열정과 외적 동기의 비교는 아직 이론상으로도 논의된 적이 없다. 조화열정과 내적 동기는 활동에 대한 즐거움, 행위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긍정적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강박열정은 활동 자체보다는 자아존중감 등 활동에 수반되는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부정적 결과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적 동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관련 연구

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에 착안하여 위와 같이 열정의 하위차원과 내적 및 외적 동기를 모형으로 설정하여 구성개념 간 변별성을 비교하고, 몰입과 정서를 종속변수로 하여 동기 변인을 통제하고도 열정이 증분설명량을 가지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유사개념과의 변별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열정이라는 새로운 구성개념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조사대상과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원척도의 개발자인 Robert J. Vallerand에게 변안 허가를 받아 영문판 열정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였으며, 번역-역번역 과정을 사용하였다(Brislin, 1970). 우선 이중 언어사용자(bilingual)로 해외에서 심리학을 부전공한 현직 영어강사가 원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한 뒤, 이를 다시 이중 언어사용자를 포함한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3명의 논의를 거쳐 영어로 역번역하여 의미상 일치 정도를 확인하였다. 원안과 의미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는 문항의 경우 이중 언어 사용자들과 연구자, 심리학 교수의 논의를 거쳐 한국판 열정 척도를 1차적으로 완성하였다.

신중한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쳐도 심리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한국어판 척도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의미 전달이 모호하거나 문장이 부자연스럽지는 않은지 의심스러운 문항들에 대해서는 영어 및 한국어에 능통한 4년제 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 42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조화열정에 대한 척도 중 “This activity reflects the qualities I like about myself”라는 문항에 대해 “이 활동은 나 자신에 대해 좋아하는 부분들을 보여준다” 또는 “이 활동은 나 자신에

대해 좋아하는 자질들을 반영한다” 등 여러 개의 번안된 문장 중에서 가장 의미를 알기 쉽고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체크하게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재논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한국판 열정 척도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부생 3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시작 전 설명문을 통해 설문 참여자에게 열정을 가진 활동 단 하나만을 떠올리며 설문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열정진단기준 척도의 평균이 4 미만인 참여자는 보고한 활동에 대해 열정이 없다고 판단하여(Carbonneau, Vallerand, Fernet, & Guay, 2008; Marsh et al., 2013)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후 중도포기자 및 불성실응답자 42명이 분석에서 제외되어 총 318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번안된 열정 척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잘 이해하였다” 또는 “잘 이해하였다”고 응답한 참가자는 75.1%였으며 “전혀 모르겠다” 또는 “조금 모르겠다”고 응답한 참여자의 비율은 2.2%로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나, 번안된 열정척도의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설문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48.7%, 여자 50.3%였으며 평균 연령은 21.91세($SD = 2.10$)였다. 열정을 가진 활동을 하는 일주일당 평균 시간은 11.06시간($SD = 10.92$)이었고, 활동을 해 온 기간의 분포는 1년 이하(33%), 1~3년(26.4%), 4~6년(18.9%), 10년 이상(14.8%), 7~10년(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활동의 유형으로는 취미 및 여가활동(43.3%), 운동(14.1%), 자기개발 및 교육(13.5%), 사회활동 및 인간관계(12.5%), 예술(12.2%), 일(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측정도구

열정진단기준(Passion Criteria)

해당 활동에 열정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Marsh 등(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참여자는 열정이 있다고

생각되는 단 하나의 활동을 떠올린 뒤 본 척도에 응답하였다. 해당 활동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 좋아함, 가치평가, 열정으로 여기는 정도를 묻는 4문항(예, “나는 이 활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을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Vallerand와 Houlfort(2003)의 연구에서는 문항 총점의 평균이 4 미만인 경우 열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 기준을 따라 평균 점수가 4 미만인 참가자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는 .78이었다.

열정(Passion Scale)

열정의 측정은 Vallerand 등(2003)이 개발한 척도를 Marsh 등(2013)이 수정하여 검증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수는 총 12문항이며, 원 척도와 같이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척도는 조화열정을 측정하는 6문항(예, “이 활동은 내 삶의 다른 활동들과 조화를 이룬다”), 강박열정을 측정하는 6문항(예,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활동만 할 것이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참여자들은 설문 시작 전,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단 하나의 활동을 떠올리도록 요청받았으며 이 활동을 생각하며 본 문항에 응답하라는 지시문을 읽고 설문에 참가하였다. Marsh 등(2013)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는 조화열정 .83, 강박열정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78, .75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Deci와 Ryan(2004)의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기반하여 개발된 척도를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율성 6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통제받고 억압을 받는다고 느낀다”, 역문항), 유능성 6문항(예, “나는 내 자신이 매우 효

울적이라고 느낀다”), 관계성 6문항(예,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 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 총 18문항이며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명희와 김아영(2008)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는 전체 척도는 .86, 자율성 .70, 유능감 .75, 관계성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90, .79, .83, .84였다.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전병재(1974)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열정활동의 정체성 투영(Part of self)

열정활동이 개인의 자아정체감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Aron 등(1992)이 개발한 Inclusion of the Other in the Self(IOS)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 사람의 자아에 타인이 내면화된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이며, ‘나’를 가르키는 원과 ‘타인’을 가르키는 원이 겹쳐진 벤다이어그램이 점점 커지는 그림이 7개에 걸쳐 제시되는 1문항(7점 척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Vallerand 등(2003)은 이 척도를 ‘타인’ 대신 ‘활동’을 나타내는 원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Watson, Clark와 Tellegen(1988)가 개발하고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타당화한 한국판 정적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사용하였고, 5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많이 그렇다)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현희 등(2003)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는 정적정서 .84, 부정정서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5, .89였다.

삶만족(Satisfaction with Life; SWL)

삶만족 측정은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고 임영진(2012)이 타당화한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K-SWLS)를 사용하였다. 5개 문항(예,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는 .85였다.

몰입(Flow)

열정활동에 대한 몰입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Schwartz와 Waterman(2006)이 개발한 Flow Experiences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활동을 하고 있을 때를 떠올리며 답변하도록 하였으며, 8문항(예,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다”)으로 구성되고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Schwartz와 Waterman (2006)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는 .7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상충(Conflict)

열정활동이 삶의 다른 활동과 상충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Vallerand 등(2003)과 Marsh 등(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4문항(예, “나는 이 활동을 위해 삶의 다른 부분들을 희생할 수 있다”)을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하였다. Marsh 등(2013)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는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72였다.

반추(Rumination)

열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이 활동에 대

한 생각이 얼마나 떠오르는지 측정하기 위해 Vallerand 등(2003)과 Marsh 등(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3문항(예, “대개, 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나는 이 활동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검토한다”)을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하였다. Marsh 등(2013)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열정활동에 투자하는 시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이 활동을 하며 보냅니까?”라는 주관식 1문항으로 열정활동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지를 측정하였다.

내적 및 외적 동기(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열정활동에 대한 내적 및 외적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Guay, Vallerand와 Blanchard(2000)가 제작한 The Situational Motivation Scale(SIMS)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내재적 동기, 확인된 조절, 외부적 조절, 무동기의 네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 4문항(예, “이 활동이 흥미롭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외부적 조절 4문항(“이 활동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을 각각 내적 및 외적 동기로서 사용하였다.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많이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Guay 등(2000)의 연구에서 각 요인에 대한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는 .76-.91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가 .90, 외부적 조절이 .82로 나타났다.

분석절차

탐색적 요인분석

국내에서의 열정 척도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318명의 표본 데이터를 무작위로 나누

어 118명(그룹 1)의 데이터를 SPSS 21.0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에 사용하였다. 신뢰할만한 분석을 위한 충분한 표본수로서 Henson과 Roberts(2006), Widaman(2012)는 참가자 대 변인 비(participant-to-variable ratios)가 5:1 이상일 것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열정 척도 12문항에 대한 118명의 표본수는 기준을 충분히 넘는 숫자라고 판단된다.

요인추출방법으로서 주축요인추출(Principal axis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방법으로는 요인 간 상관을 허용하는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고유값(eigenvalue) 1이 넘는 요인이 3개 도출되었으나 카이저 규칙(Kaiser rule)은 요인 수 결정에 적합하지 못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이순목, 1994; Cliff, 1988; Zwick & Velicer, 1982). 따라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 평행분석 결과와 스크리 도표를 참고하여 요인 수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요인 수를 고정된 뒤 패턴행렬표를 산출하고 요인부하량이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Stevens(1996)와 Nimon, Zigarmi, Houson, Witt와 diehl(2011)은 문항들이 요인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인부하량이 최소 .40 이상일 것을 권장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삼아, 각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이 적절한 수치(최소 .40 이상)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요인구조의 검증에 앞서 분석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200명(그룹 2)의 데이터는 AMOS 18.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에 투입하였다.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였으며, 열정의 하위차원을 가정하지 않는 1요인과 조화, 강박열정을 가정하는 2요인 모형을 비교하였다. 모형 검증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로는 χ^2 값,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이 있으며 RMSEA .08 이하, CFI .90 이상, SRMR .08 이하일 경우 대체적으로 좋은 모형으로 채택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이 적합도 지수들은 각자 모형의 서로 다른 특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모형 적합도 확인에 함께 고려하도록 권장되고 있다(Boomsma, 2000; Kline, 2011; McDonald & Ho, 2002). 다만 χ^2 값은 표본수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χ^2/df 비를 많이 보고하며, 3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라고 평가된다(Kline, 2011).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적합도 지수로서 GFI(Goodness-of-fit-index)가 있으며, 양호한 적합도의 기준은 .90 이상이다(Hu & Bentler, 1999). 본 분석에서는 위 지수들을 고려하여 모형 적합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준거관련 타당도

열정과 이와 관련된 변인 간 관계가 기존 연구에서 관찰된 것과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여 열정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룹 1과 2를 통합한 전체 318명의 데이터에 대해 SPSS 21.0을 사용하여 열정과 이와 관련된 결과변인인 삶만족, 정서, 몰입, 상충, 반추, 기본심리욕구, 자아존중감, 열정활동의 정체성 투영 및 투자하는 시간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열정과 동기의 구성개념 간 변별성

두 개념의 변별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체 318명의 데이터에 대해 AMOS 18.0을 사용하고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열정의 각 하위차원(조화, 강박열정)과 내적 및 외적 동기가 모두 구분되는 4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도가 우수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4요인 모형과 비교하였다. 대안 모형으로는 열정과 동기가 서로 구분되지 않는

1요인 모형, 열정과 동기의 각 하위차원(조화열정과 내적 동기, 강박열정과 외적 동기)이 비슷한 특성을 공유함에 따라 묶이는 2요인 모형, 열정을 단일차원적 구성개념으로 가정하고 내적 및 외적 동기와 구분된다고 보는 3요인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모형 간 비교를 통해 열정이 기존 유사개념인 동기와 차별화될 수 있는 구성개념인지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로는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했던 χ^2 값 및 χ^2/df 비, CFI, RMSEA, SRMR, GFI와 추가적으로 TLI (Tucker-Lewis Index)와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를 보고하였다. ΔAIC 가 2 이상이면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며(Jöreskog & Sörbom, 1993), TLI의 양호한 적합도 기준은 .90 이상이다(Hu & Bentler, 1999).

열정의 증분타당도

열정이 동기와 변별되는 구성개념임을 재검증하기 위해, 관련 결과변인에 대해 동기의 영향을 통제한 열정의 증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열정과 상관이 밝혀진 변인인 몰입과 긍정 및 부정정서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전체 318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 동기(내적 및 외적 동기)를 투입한 뒤, 마지막 3단계에서 조화 및 강박열정을 투입하여 동기가 종속변수에 대해 설명하는 변량 이상의 증분설명량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각 종속변수에 대한 조화 및 강박열정의 영향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방향과 동일하게 나타났는지 확인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열정 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

서, KMO(Kaiser-Meyer-Olkin Measure)는 .76,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가 $p < .001$ 로 나타나 본 연구의 데이터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전제를 만족하였다. 요인 수 결정 방법으로서, 고유값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결정하는 카이저 규칙은 가장 널리 쓰이고 있지만 요인 수의 과소 추출 및 과대 추출의 위험성과 결과의 부정확성 및 비일관성 등 문제가 많은 방법으로 비판받고 있다(김주환 등, 2009; 이순목, 1994; Cliff, 1988; Zwick & Velicer, 1982). 반면 평행분석(Horn, 1965)은 카이저 규칙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많은 요인 수 결정 방법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방법 중 하나로 보고되는 방법이다(Hayton, Allen, & Scarpello, 2004; Horn, 1965; Velicer, Eaton, & Fava, 2000; Zwick & Velicer, 1986). 또한 이순목(1994)은 요인 수 결정에 하나의 방법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을 함께 사용하기를 제안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요인 수 결정을 위해 평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스크리 검정(Scree test)결과와 함께 참고하였다. 평행분석은 Thompson과 Daniel(1996)의 SPSS를 위한 syntax를 이용하였고 유효한 요인 수 추출 기준으로서 고유값의 평균과 95% 기준선을 사용하라는 Longman, Cota, Holden과 Fekken(1989)의 권고에 따라 실시하였다. 평행분석 결과 추출 가능한 요인이 2개로 나타났으며 요인들의 고유값은 4.10, 1.69로 나타났다. 스크리 검정 결과 역시 요인 수 2개 이후로 기울기가 급격히 평준화되는 양상을 보여 열정 척도의 요인구조가 Vallerand 등(2003)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요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요인 수를 2개로 지정하여 요인 간 상관을 허용하는 사각회전(Oblique rotation)방식을 통한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최종적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표 1)를 보면 모든 문항이 해당 요인에 .40 이상으로 적정 수준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s)이 나타났기 때문에(Nimon et al., 2011) 12문항 중 제거할 문항은 없었다. 다만 강박열정의 4번째 문항(“나는 이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있다”)의 경우 강박열정 요인에 .52, 조화열정 요인에 .36의 수치로 적재되었으나, 다음의 이유로 강박열정의 문항으로 판단하였으며 본 문항을 삭제하지 않았다.

첫째, 김지연 등(2012)은 교차부하된 문항 판단의 기준을 두 요인의 요인부하량의 차이가 .10 이하일 경우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본 문항은 강박열정에 적재되는 문항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이순목(2000)은 문항 삭제에 있어 요인계수보다 문항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문항은 조화열정에 없는 특성인 열정 활동에 대한 강박적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명백히 강박열정에 속한 문항이다. 셋째, 본 문항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그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Vallerand 등(2003)의 원칙도에 포함되어 있는 강박열정 문항은 Marsh 등(2013)에서 오직 2문항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교체되었는데, 그 중 한 문항이 이 4번째 문항이다. 즉 이 문항은 원칙도에서 그대로 넘어온 문항이므로 Marsh 등(2013)을 포함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검증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item-total correlation)를 검토한 결과 본 문항은 .51로 나타났다. 문항이 .20-.30 이하의 상관계수를 보이는 경우 검토가 필요하며 그 이상일 경우 수용할 수 있다(Furr & Bacharach, 2014). 또한 본 문항 삭제 시 강박열정 문항의 전체 신뢰도가 .78에서 .76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인 1, 2에 속한 문항을 살펴보면 Marsh 등(20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화열정 6문항, 강박열정 6문항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두 요인 간 상관은 .16으로, 각 요인은 서로 잘 변별되는 구성개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하는 대상인 수정된 열정척도를 앞서 검증한 Marsh 등(2013)의 연구에서 두 요인 간 상관이 .18, 최초로 열정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한 Vallerand 등(2003)의 연구에서는 .46이었다.

표 1. 열정 척도 문항과 요인부하량 (N=118)

번호	문항	요인 1	요인 2
조화1	이 활동은 나의 일부를 보여주는 다른 활동들과 조화를 이룬다.	.76	-.07
조화2	이 활동은 내 삶의 다른 활동들과 조화를 이룬다.	.73	-.18
조화3	이 활동을 하며 알게 되는 새로운 것들은 이 활동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한다.	.70	.00
조화4	이 활동은 내 삶 속에 잘 융화되어 있다.	.67	.12
조화5	이 활동은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63	-.01
조화6	이 활동은 내가 좋아하는 나의 장점들을 보여준다.	.55	.11
강박1	이 활동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05	.77
강박2	나는 이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자제하기 힘들다.	-.05	.73
강박3	이 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 신나서 때때로 나는 이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	-.11	.72
강박4	나는 이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있다.	.36	.52
강박5	오직 이 활동만이 나를 신나게 한다.	-.00	.49
강박6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활동만 할 것이다.	.07	.45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2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에 사용하지 않은 200명(그룹 2)의 데이터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비교를 위해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이 서로 상관이 있으나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2요인 모형과, 이 두 열정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는 1요인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들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를 보면, 2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χ^2 (53, N=200) = 121.39, χ^2/df = 2.29, GFI = .90, CFI = .88, RMSEA = .08, SRMR = .08로 모든 수치가 좋은 적합도를 만족시키는 값이었으며, 1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보다 우수하였다. AIC 값의 경우 1요인보다 2요인에서 더 낮은 수치로 나타났고(ΔAIC = 206.456), χ^2 차이검증에서도 1요인 모형($\chi^2(54)$ = 329.84)보다 2요인 모형($\chi^2(53)$ = 121.39)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Delta \chi^2(1)$ = 208.46 p < .001). 또한 각 요인과 문항 간 요인부하량이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

표 2. 열정 척도의 적합도 지수 및 χ^2 차이 검증

	χ^2	df	χ^2/df	GFI	CFI	RMSEA (90% 신뢰구간)	SRMR	AIC
1요인 모형	329.85	54	6.11	.72	.50	.16(.14-.18)	.16	401.84
2요인 모형	121.39	53	2.29	.91	.88	.08(.06-.01)	.08	195.39
수정된 2요인 모형	100.68	52	1.94	.93	.91	.07(.05-.09)	.08	176.68

$\chi^2(1\text{요인 모형}-2\text{요인 모형})=(329.85-121.39)/(54-53)=208.46^{***}$

주. N=2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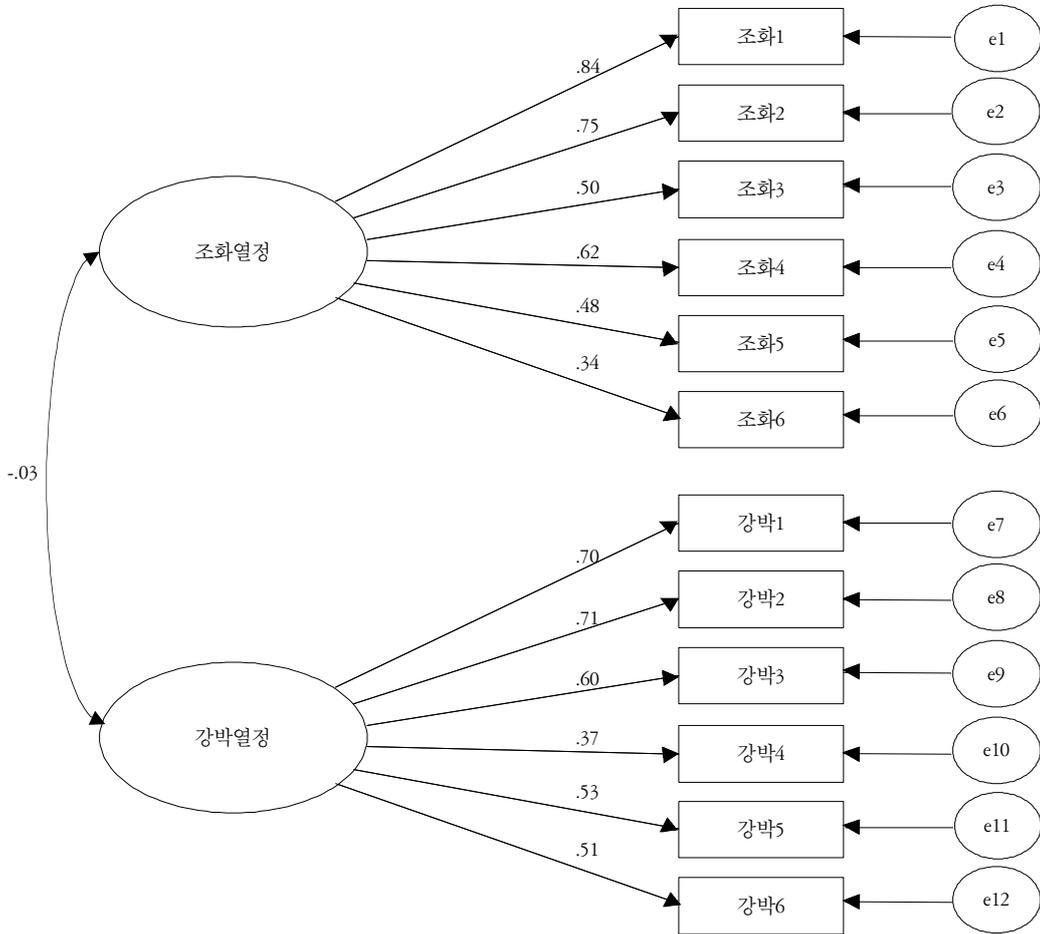


그림 1. 열정 척도 2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200)

하게 나타나 본 열정 척도가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구 타당화 연구이므로 있는 그대로의 수치 보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분석에서 오차항간 공분산은 부여하지 않았다.

본 분석에서 2요인 모형의 CFI 값이 .88로 Hu와 Bentler(1999)의 기준인 .90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적합도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연구자들의 경험적 법칙(rules of thumb)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CFI 값이 .80 이상이라면 최적은 아니지만 양호한 수치라는 기준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참고하여 모형의 어느 부분이 낮은 CFI 값의 원인이 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수정지수를 산출한 결과 조화열정을 측정하는 3번 문항(“이 활동을 하며 알게 되는 새로운 것들은 이 활동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한다”)과 5번 문항(“이 활동은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의 오차항간 공분산의 수정지수가 19.53으로 모든 수정지수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공분산을 연결할 경우 χ^2 값이 19.53만큼 감소함을 뜻한다. 두 오

차항간 공분산을 연결하고 재분석한 결과, CFI 값이 .91로 상승하였다. 수정된 2요인 모형은 낮은 CFI 값의 원인에 대한 탐색 목적으로만 분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χ^2 차이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림 1은 수정된 2요인 모형이 아닌 원 2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준거관련 타당도

본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체 318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앞서 기술한 준거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을 보면 조화열정은 삶만족($r = .46, p < .01$), 기본심리욕구의 세 하위요인인 자율성($r = .28, p < .01$), 유능성($r = .46, p < .01$), 관계성($r = .38, p < .01$), 자아존중감($r = .37, p < .01$)과 정적 상관관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조화열정이 삶만족이 높고, 강박열정과 달리 기본심리욕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건강한 열정이며, 열정활동에 의존하지 않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서와 관련하여, 조화열정은 긍정정서와는 정적 상관($r = .40, p < .01$), 부정정서와는 부적 상관($r = -.12, p < .05$)인 반면 강박열정은 긍정정서($r = .13, p < .05$)뿐 아니라 부정정서($r = .19, p < .01$)와도 정적 상관관이 나타났다. 조화열정은 명백히 긍정정서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강박열정이 높은 사람의 경우 긍정정서 뿐 아니라 부정정서 역시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박열정은 상충($r = .45, p < .01$), 반추($r = .53, p < .01$),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r = .17, p < .01$)과 정적 상관관이 나타났다. 이는 활동을 강박적이고 경직된 양상으로 지속하는 강박열정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삶만족($r = .06, n.s.$)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며,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r = -.12, p < .05$)이 나타났고 나머지 두 하위요인과는 유의한 상

관이 없었다. 이는 통제된 내면화 과정으로 인해 자신이 주체가 되어 활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강박열정의 특성을 잘 나타내며,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적응적인 열정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열정활동이 정체성에 내면화된 정도를 측정한 IOS의 경우 조화열정, 강박열정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강박열정에서 더 큰 상관이 나타났다(조화열정: $r = .24, p < .01$; 강박열정: $r = .40, p < .01$) 이는 Vallerand 등(2003)의 연구와 일관된 방향이다. 또한 강박열정의 경우 자아존중감($r = -.07, n.s.$)과 유의하지 않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강박열정의 경우 특히 열정활동에 의존적이며, 자아가 취약하고 불안정하여 자아존중감과 낮거나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Lafrenière et al., 2011; Mageau et al., 2011; Stenseng & Dalskau, 2010; Vallerand, Ntoumanis et al., 2008). 전반적으로 열정의 각 하위요인과 관련된 모든 준거변인의 관계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일관되고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열정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 증거를 제공하였다.

열정과 동기의 구성개념 간 변별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열정(조화열정, 강박열정)과 동기(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서로 변별되는 구성개념임을 검증하기 위해 4요인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대안모형(1요인, 2요인, 3요인 모형)들과 비교하였다. 1요인 모형은 열정과 동기가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구성개념임을 가정하는 모형, 2요인 모형은 조화열정은 그 속성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내적 동기와, 강박열정은 외적 동기와 묶이는 모형이며, 3요인 모형은 열정을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의 구별이 없는 단차원적 구성개념으로 보고 이것이 내적 및 외적 동기와 구별된다고 보는 모형이다. 그러나 앞의 분석결과에서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은 서로 상관은 있

표 3. 번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 (N=318)

	M	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조화	5.05	0.86	-																
2. 강박	3.65	1.07	.12*	-															
3. PC	5.81	0.78	.44**	.29**	-														
4. 자율	4.39	0.80	.28**	-.12*	.23**	-													
5. 유능	4.27	0.78	.46**	.04	.31**	.57**	-												
6. 관계	4.58	0.76	.38**	-.02	.29**	.50**	.58**	-											
7. SE	3.75	0.87	.37**	-.07	.29**	.62**	.67**	.55**	-										
8. IOS	4.00	1.40	.24**	.40**	.43**	.12*	.14*	.14*	.11*	-									
9. 긍정	1.81	0.75	.40**	.13*	.31**	.21**	.38**	.32**	.27**	.18**	-								
10. 부정	1.23	0.83	-.12*	.19**	-.06	-.37**	-.28**	-.32**	-.42**	-.00	.10	-							
11. 삶만족	4.61	1.16	.46**	.06	.33**	.41**	.59**	.51**	.65**	.15**	.35**	-.27**	-						
12. 몰입	4.91	0.82	.32**	.20**	.36**	.26**	.35**	.29**	.17**	.20**	.35**	-.03	.23**	-					
13. 상충	4.09	1.07	.10	.45**	.25**	-.05	.05	-.02	.03	.36**	.11*	.14*	.08	.13*	-				
14. 반추	3.53	1.26	.12*	.53**	.19**	-.11*	-.01	-.09	-.08	.35**	.12*	.22**	.01	.09	.47**	-			
15. 시간	11.06	10.92	.02	.17**	.23**	.05	.11	-.09	.08	.35**	.18**	.01	.08	.00	.28**	.18**	-		
16. 내적	5.56	1.03	.28**	.14*	.33**	.21**	.25**	.34**	.16**	.10	.30**	-.18**	.24**	.58**	.02	-.01	-.12*	-	
17. 외적	3.09	1.46	.26**	.21**	.17**	-.05	.05	-.06	.03	.27**	.15**	.25**	.07	.07	.26**	.31**	.27**	-.25**	-

주. * $p < .05$, ** $p < .01$, 조화=조화일정, 강박=강박일정, PC=열정단기준(Passion Criteria), SE=자이론중감, IOS=열정활동의 정체성 투영, 긍정=긍정일정, 부정=부정일정, 시간=열정활동에 투자하는 시간, 내적=내적동기, 외적=외적동기

으나 분명히 구분되는 열정의 하위차원으로 나타났으므로, 연구자는 4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우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분석을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통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화열정, 강박열정의 각 6개 문항은 문항묶음(Item parceling)하였다. 요인 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항과 가장 낮은 문항을 합하였고, 그 다음으로 높은 문항과 낮은 문항을 짝짓는 방식으로 문항묶음을 진행하여 각 요인 당 측정변수를 3개로 줄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모형의 설정 시 1요인 모형은 잠재변인 간 모든 공분산을 1로 제약하였고, 2요인 모형은 조화열정과 내적 동기 간 공분산, 강박열정과 외적 동기 간 공분산을 1로 제약하였으며, 3요인 모형은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간 공분산을 1로 제약하였다. 그리고 4요인 모형은 잠재변인 간 공분산을 모두 자유모수로 추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로는 χ^2 값 및 χ^2/df 비, GFI, TLI, CFI, RMSEA, SRMR, 그리고 AIC값을 사용하였다.

각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낸 표 4를 보면, 4요인 모형이 다양한 적합도 지수 기준치에 부합하는 만족스러운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AIC 값은 가장 낮게 나타나 다른 대안모형들과 비교했을 때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4요인 모형($\chi^2(71) = 230.16, p < .001$)에 대해 각 대안모형을 비교한 χ^2 차이 검증 결과에서도, 1요인($\Delta\chi^2(6) = 163.70, p < .001$), 2요인($\Delta\chi^2(2) = 29.44, p < .001$) 3요인($\Delta\chi^2(1) =$

7.94, $p < .01$)모형에 대해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관찰되어, 4요인 모형이 가장 좋은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열정은 내적 및 외적 동기와 변별되는 개념인 동시에 그 하위차원에 속한 조화열정과 강박열정도 서로 잘 구분되는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열정의 증분타당도

몰입에 대한 열정의 증분타당도 검증

열정이 몰입 경험에 대해 내적 및 외적 동기가 설명하는 변량을 통제하고도 유의한 증분설명량을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성별 및 나이를 1단계에 투입하였고 동기 변인(내적, 외적 동기)을 2단계에 투입한 뒤, 마지막 3단계에서 열정 변인(조화열정, 강박열정)을 투입하였다.

몰입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인 표 5를 보면 1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고, 이를 통제한 2단계에서 동기 변인이 몰입에 대해 유의한 설명량을 보였다($\Delta R^2 = .39, p < .001$). 인구통계학적 변인, 동기 변인을 통제한 마지막 3단계에서 열정은 1%의 유의한 증분설명량이 있었으며($\Delta R^2 = .01, p < .05$) 각 열정 유형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강박열정은 유의한 효과가 없었으나 조화열정의 효과는 유의미한 정적 방향으로 나타났다($\beta = .11, p < .05$).

표 4. 각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GFI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SRMR	AIC
1요인 모형	393.87	77	5.12	.87	.83	.86	.11(.10-.13)	.22	449.87
2요인 모형	259.60	73	3.56	.90	.89	.92	.09(.08-.10)	.11	323.60
3요인 모형	238.11	72	3.31	.91	.90	.92	.09(.07-.10)	.09	304.11
4요인 모형	230.16	71	3.24	.91	.91	.93	.08(.07-.10)	.08	298.16

주. N=318

표 5. 몰입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몰입		
		β	R^2	ΔR^2
1단계	성별	-0.06	.01	.01
	나이	.04		
2단계	성별	-0.06	.40	.39***
	나이	.02		
	내적동기	.51***		
	외적동기	.14***		
3단계	성별	-0.09	.42	.01*
	나이	.01		
	내적동기	.46***		
	외적동기	.11***		
	조화열정	.11*		
	강박열정	.04		

주. N=318, *** $p < .001$, * $p < .05$.

정서에 대한 열정의 증분타당도 검증 의한 증분설명량을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
 열정이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에 대해 내적 분석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긍
 및 외적 동기가 설명하는 변량을 통제하고도 유 정정서와 부정정서에 대해서 앞선 분석과 같이

표 6. 정서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긍정정서			부정정서		
		β	R^2	ΔR^2	β	R^2	ΔR^2
1단계	성별	-0.02	.00	.00	.04	.00	.00
	나이	.02			.03		
2단계	성별	-0.01	.16	.15***	.06	.08	.08***
	나이	.01			.04		
	내적 동기	.27***			-.10*		
	외적 동기	.13***			.13***		
3단계	성별	-0.07	.22	.06***	.06	.15	.07***
	나이	.01			.04		
	내적 동기	.19***			-.07		
	외적 동기	.07*			.14***		
	조화열정	.25***			-.19**		
	강박열정	.03			.15**		

주. N=318, *** $p < .001$, ** $p < .01$, * $p < .05$.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1단계에, 동기 변인이 2단계에 투입되고 3단계에 열정 변인이 투입되었다. 표 6과 같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긍정 및 부정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고, 2단계에서 나타나듯이 동기 변인은 긍정 및 부정정서에 대해 각각 15%, 8%의 유의한 설명량이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동기 변인을 통제 한 3단계에서, 긍정정서에 대해 열정은 6%의 유의한 증분설명량을 보였고($\Delta R^2 = .06, p < .001$), 강박열정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조화열정의 효과는 유의미한 정적 방향으로 나타났다($\beta = .25, p < .001$). 부정정서에 대해 열정은 7%의 유의한 증분설명량을 가졌고($\Delta R^2 = .06, p < .001$), 두 열정 유형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조화열정은 부정정서에 대한 영향이 부적 방향으로($\beta = -.19, p < .01$), 강박열정은 정적 방향으로 나타났다($\beta = .15, p < .01$).

본 연구에서 몰입, 정서에 대한 열정의 증분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열정은 내적 및 외적 동기가 몰입과 정서를 설명하는 변량을 넘어선 추가적인 설명량을 가지며 각 열정 유형이 갖는 효과의 방향 역시 선행연구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나타났다. 이는 열정이라는 구성개념이 기존의 심리학적 개념과 중첩되는 것이 아니라 변별되는 개념임을 시사하며 향후 심리학 연구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새로운 변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는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으로 이루어진 열정의 두 유형을 측정하는 도구인 열정 척도(Passion Scale)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였다. 영문판 열정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한 후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열정의 2요인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다양한 준거변

인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열정이 이와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심리학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구성개념인 내적 및 외적 동기와는 구별되는 개념임을 입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몰입 및 정서 변인에 대한 열정의 증분타당도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판 열정 척도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의 2요인 구조로 나타났다. 또한 열정의 두 하위요인은 서로 잘 변별되는 개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요인 간 상관계수는 수정된 열정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한 Marsh 등(2013)이 보고한 수치와 비슷하였다. 이 결과는 요인 간 상관이 다소 높았던 Vallerand 등(2003)의 기존 척도보다 현 척도가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을 더욱 변별되는 개념으로 파악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잠재적으로 확인한 2요인 구조가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다양한 적합도 지수 비교 및 χ^2 차이검증을 통해 열정의 하위차원을 가정하지 않는 1요인 대안모형과 2요인 모형을 비교한 결과, 2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했으며 개별적인 적합도 수치들은 대부분 양호하거나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정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상관분석 결과를 해석한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심리욕구 변인과 관련하여, 조화열정은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된 상태인 균형잡힌 열정인 반면, 강박열정은 활동 외 분야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삶 전반적인 기본심리욕구의 충족 수준이 떨어진 상태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Vallerand, 2015).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및 열정활동의 정체성 투영 변인과 관련하여, 조화열정을 가진 이들이 열정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안정된 근원에서 자존감을 찾는 반면 강박열정은 낮은 자존감을 가졌으며 열정활동이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

치하였다(Mageau et al., 2011; Vallerand, 2015; Vallerand et al., 2003). 마지막으로 웰빙 관련 변인과 관련하여, 조화열정은 긍정정서, 높은 삶만족, 몰입과 관련된 순기능적인 열정인 반면 강박열정은 부정정서, 상충, 반추, 열정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높게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열정이라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였다(Mageau & Vallerand, 2011; Mageau, & Vallerand, 2007; Rattelle et al., 2004; Rip et al., 2006; Vallerand, 2010; Vallerand et al., 2003). 이처럼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은 열정의 하위차원에 함께 속해있지만 서로 대조되는 심리적 결과와 관련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두 요인으로 구성된 열정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입증하였다.

열정과 동기의 변별성 분석에서는 대안모형과 비교할 때 열정의 하위차원과 내적 및 외적 동기 모두가 구분되는 4요인 모형이 가장 우수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나, 열정은 내적 및 외적 동기와 다른 차원의 개념이며 그 하위차원도 뚜렷이 구분 가능한 개념임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몰입과 정서에 대한 열정의 증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내적 및 외적 동기를 통제 한 후에도 열정은 유의한 증분설명량을 나타내 열정과 동기가 변별되는 개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몰입과 긍정정서에 대해 조화열정이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 부정정서에 대해서는 강박열정이 정적, 조화열정이 부적 방향의 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동양 문화권에서도 열정이 2요인 구조로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열정 척도가 개발된 후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에서 실시된 타당화 연구와 다양한 열정활동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연구에서 열정은 2요인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것이 일관적으로 보고되어 왔다(Burke, Astakhova, & Hang, 2014; Marsh et al., 2013; Vallerand, 2015; Vallerand et al., 2003). 그러나 대부분의 열정 연구가 서양문화권에서만 실시된 것과 열정 유형의 분화 과정에서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고려할

때, 동양 문화권에서의 열정의 구조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열정의 2요인을 확인하여 최근 중국에서 실시된 열정의 타당화 연구(Zhao, St-Louis, & Vallerand, 2015) 결과와 함께 동양 문화권에서도 Vallerand 등(2003)의 열정의 이론적 모형이 성립 가능함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시도된 적 없는 방법론을 이용하여 열정의 구성개념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에 대해 재검증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탐색적 요인분석 절차에서 요인 수 결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카이제 규칙은 간단하고 편리해보이지만 논리상의 치명적인 오류가 존재하는 잘못된 기준이다(김주환 등, 2009; 이순목, 1994; Cliff, 1988; Zwick & Velicer, 1982).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요인을 탐색하는 데 이용된 평행분석은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지만 요인 수 결정에 있어 매우 정확한 분석법으로 보고되고 있다(Hayton et al., 2004; Horn, 1965; Velicer et al., 2000; Zwick & Velicer, 1986). 또한 열정과 그 유사개념인 내적 및 외적 동기와의 개념적 변별성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열정과 동기 변인 간 상관관계의 유의성만을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열정과 동기의 요인구조에 대한 다양한 모형들을 설정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열정과 동기를 단차원적으로 파악하는 1요인 모형부터 각 개념의 모든 하위차원이 구분되는 4요인 모형까지 설정하여 비교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더욱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였으며, 구성개념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하였다. 특히 이러한 모형 비교 방법을 통해 조화열정과 내적 동기, 강박열정과 외적 동기가 각각 같은 차원상의 개념인지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검증할 수 있었고, 이들이 서로 변별되는 개념임을 밝혀내었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열정 척도를 타당화하여 향후 열정과 관련된 국내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타당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많은 수의 준거변인을 연구에 포함하여, 열정이라는 개념이 다양한 심리학적 변인과 관련되어 있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국내에 소개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유사개념과의 변별성 분석 및 증분타당도 검증을 통해 열정이 심리학 분야에서 새롭고 유용한 변인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정은 학술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 적용성이 높은 주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정이라는 구성개념은 전 연령대에서 관찰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에만 한정되어 실시되었다. 많은 타당화 연구가 대학생 집단으로 이루어지고 본 척도의 원안을 타당화한 Vallerand 등(2003)도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폭넓은 연령대에서 열정의 요인구조 및 양상이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의 특성상, 취미나 여가시간에 할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중장년층의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2-30대와는 열정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를 표본으로 하여 척도의 교차타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문항의 번안이 적절치 못하였거나 중복 측정하는 문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열정의 2요인 모형을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증하는 단계에서 CFI 값이 이상적인 적합도 기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여 수정지수를 참고한 결과, 조화열정의 3번과 5번 문항의 오차항간 상관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문항이 중복된 특성을 측정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문항 내용을 고려할 때도 3번 문항(“이 활동을 하며 알게 되는 새로운 것들은 이 활동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한다”)과 5번 문항(“이 활동

은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을 유사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를 제공한다. 이 문항들의 수정 여부에 대해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열정의 유사개념으로서 내적 및 외적 동기만을 선정하였으나 그 외에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변인과 열정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강박열정은 강박증과 표면상 그 특성이 유사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강박증을 측정하는 민병배와 원호택(1999)의 척도를 살펴보면 심성활동에 대한 통제 실패, 오염과 관련된 생각 및 청결행동, 확인행동, 충동과 행동통제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활동의 통제 실패나 충동이란 자기 또는 남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 등의 정신병리적 요소를 뜻하는 부분이다. 강박열정은 정신병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 뿐더러 위와 같은 정의가 내포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중독과 강박열정은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다. Goodman(1990)은 중독은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반복하는 무기력(powerlessness)과 심각한 부정적 결과가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계속하는 조절 불가능성(unmanageability)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Philippe, Vallerand와 Lavigne(2009)는 강박열정과 중독의 차별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스포츠, 음악과 같은 일상 활동에 중독되는 현상은 매우 드물 뿐더러 보통 중독은 이러한 활동적 차원이 아닌 약물 남용 등에 적용되는 개념이며, 둘째, 열정을 정의하는 중요 요소인 활동에 대한 사랑과 높은 가치평가가 중독에는 결여되어 있다(Philippe, Vallerand, & Lavigne, 2009). 그러나 실제로 이 두 개념이 얼마나 변별되는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Vallerand (2015)는 열정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투지(grit), 흥미(personal interests), 헌신(commitment)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열정은 이들 개념과 차별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이론적 논의에 그치고 있다. 실증적 연구를 통해 열정과 이들 개념의 변별타당도 근거를 확인하여 심리학 분야에서 열정 변인의 활용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열정의 심리적 결과에 대한 문화차가 나타나지 않고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했으나, 열정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열정에 대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서양문화권에서 실시된 관계로 환경이 상당히 다른 한국 및 동양문화권에서는 조화 및 강박열정의 심리적 결과가 기존에 보고된 바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조화열정은 자율적인 환경에서, 강박열정은 통제적인 환경에서 발달되므로 문화에 따라 열정의 한 유형을 촉진시키거나 바람직하게 여기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강박열정을 바람직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나타나는 현상은 한국이 통제가 높은 문화권에 속해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처럼 한 유형에 더 친화적인 환경에서는 각 열정 유형의 심리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Amiot, Vallerand와 Blanchard(2006)를 시작으로 열정 유형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 및 시간에 따른 열정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환경에 따라 우세한 열정이 변화한다는 연구는 이미 보고된 바 있다(Vallerand, 2015). 이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는 어렸을 때 조화열정이 우세했던 아이가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이 많아지는 성인기에 이르러서 강박열정이 우세하게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환경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열정의 변화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이 20대 청년일 때와 80대 노인일 때 나이에 따른 성격 특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열정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파악하지 못한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이나 시간의 영향 및 이에 따른 열정의

변화 양상을 후속 연구에서 보충한다면 의미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난도 (2010). *아프니까 청춘이다*. 서울: 쌤앤파커스.
- 김영훈, 이영호 (2004). 도박열정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 999-1009.
-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 (2012). 한국판 노인차별주의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 89-106.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 157-174.
- 민병배, 원호택 (1999). 한국판 Maudsley 강박행동 질문지와 Padua 강박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 163-182.
- 이순목 (1994). 요인분석의 관행과 문제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7, 1-27.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935-946.
- 임영진 (2012).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경찰공무원, 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 877-896.
- 유진, 정꽃님 (2008). 무용 열정의 이원론적 모형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 163-175.
- 전병재 (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107-130.
- Aron, A., Aron, E. N., & Smollan, D. (1992). Inclusion of Other in the Self Scale and the

- structure of interpersonal clos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596-612.
- Amiot, C. E., Vallerand, R. J., & Blanchard, C. M. (2006). Pass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 test of the person-environment fit hypothe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220-229.
- Bélanger, J. J., Lafreniere, M. A. K., Vallerand, R. J., & Kruglanski, A. W. (2013). Driven by fear: The effect of success and failure information on passionate individuals'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 180-195.
- Boomsma, A. (2000). Reporting analyses of covariance structu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7, 461-483.
- Bonneville-Roussy, A., Lavigne, G. L., & Vallerand, R. J. (2011). When passion leads to excellence: The case of musicians. *Psychology of Music*, 39, 123-138.
- Burke, R. J., Astakhova, M. N., & Hang, H. (2014). Work passion through the lens of culture: Harmonious work passion, obsessive work passion, and work outcomes in Russia and China.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30, 1-15.
- Brislin, R. W. (1970). Back-translation for cross-cultural resear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 185-21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1, 230-258.
- Carbonneau, N., Vallerand, R. J., Fernet, C., & Guay, F. (2008). The role of passion for teaching in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outcom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0, 977-987.
- Cliff, N. (1988). The eigenvalues-greater-than-one rule and the reliability of components. *Psychological Bulletin*, 103, 276-279.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Deci, E. L., & Vansteenkiste, M. (2004).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basic need satisfaction: Understanding human development in positive psychology. *Ricerche di Psicologia*, 27, 23-40.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Furr, R. M., & Bacharach, V. R. (2014). *Psychometrics: An Introduction*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Goodman, A. (1990). Addiction: definition and implications.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5, 1403-1408.
- Guay, F., Vallerand, R. J., & Blanchard, C. (2000). On the assessment of situational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The Situational Motivation Scale (SIMS). *Motivation and Emotion*, 24, 175-213.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NJ: Prentice Hill.
- Henson, R. K., & Roberts, J. K. (2006).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ublished research: Common errors and some comment on improved practic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6, 393-416.
- Houliort, N., L. Philippe, F., J. Vallerand, R., & Ménard, J. (2013). On passion and heavy work investment: personal and organizational outcome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9, 25-45.
- Horn, J. L. (1965). A rationale and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in factor analysis.

- Psychometrika*, 30, 179-185.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 1-55.
- Koestner, R., & Losier, G. F. (2002). Distinguishing three ways of being highly motivated: A closer look at introjection, identifica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101-121).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afrenière, M. A. K., Bélanger, J. J., Sedikides, C., & Vallerand, R. J. (2011). Self-esteem and passion for activit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 541-544.
- Longman, R. S., Cota, A. A., Holden, R. R., & Fekken, G. C. (1989). A regression equation for the parallel analysis criterion in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Mean and 95th percentile eigenvalu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4, 59-69.
- Mageau, G. A., Carpentier, J., & Vallerand, R. J. (2011). The role of self-esteem contingencies in the distinction betwee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 720-729.
- Mageau, G. A., & Vallerand, R. J. (2007). The moderating effect of passion on the relation between activity engagement and positive affect. *Motivation and Emotion*, 31, 312-321.
- Mageau, G. A., Vallerand, R. J., Charest, J., Salvy, S. J., Lacaille, N., Bouffard, T., & Koestner, R. (2009). On the development of harmonious and obsessive passion: The role of autonomy support, activity specialization, and identification with the ac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77, 601-646.
- Mageau, G. A., Vallerand, R. J., Rousseau, F. L., Ratelle, C. F., & Provencher, P. J. (2005). Passion and gambling: Investigating the divergent affective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gambl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5, 100-118.
- Marsh, H. W., Vallerand, R. J., Lafrenière, M. A. K., Parker, P., Morin, A. J., Carbonneau, N., Jowett, S., Bureau, J. S., Fernet, C., Guay, F., Abduljabbar, A. S., & Paquet, Y. (2013). Passion: Does one scale fit all? Construct validity of two-factor passion scale and psychometric invariance over different activities and languages. *Psychological Assessment*, 25, 796-809.
- McDonald, R. P., & Ho, M. -H. R. (2002). Principles and practice in report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es. *Psychological Methods*, 7, 64-82.
- Nimon, K., Zigarmi, D., Houson, D., Witt, D., & Diehl, J. (2011). The work cognition inventory: Initial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22, 7-35.
- Ratelle, C. F., Vallerand, R. J., Mageau, G. A., Rousseau, F. L., & Provencher, P. (2004). When passion leads to problematic outcomes: A look at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0, 105-119.
- Rip, B., Fortin, S., & Vallerand, R.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passion and injury in dance students. *Journal of Dance Medicine & Science*, 10, 14-2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 54-67.
- Schwartz, S. J., & Waterman, A. S. (2006).

- Changing interests: A longitudinal study of intrinsic motivation for personally salient activit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 1119-1136.
- Stevens, J. (1996).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3r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 Stenseng, F., & Dalskau, L. H. (2010). Passion, self-esteem, and the role of comparative performance evaluation.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2, 881-894.
- Thompson, B., & Daniel, L. G. (1996). Factor analytic evidence for the construct validity of scores: A historical overview and some guidelin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6, 197-208.
- Vallerand, R. J. (2010). On passion for life activities: The dualistic model of passion.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 97-193). New York, NY: Academic Press.
- Vallerand, R. J. (2015). *The Psychology of Passion: A Dualistic Model*.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Vallerand, R. J., Blanchard, C., Mageau, G. A., Koestner, R., Ratelle, C., Léonard, M., Gagné, M., & Marsolais, J. (2003). Les passions de l'ame: o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756-767.
- Vallerand, R. J., & Houffort, N. (2003). Passion at work: toward a new conceptualization. In S. W. Gilland, D. D. Steiner, & D. P. Skarlicki (Eds.), *Emerging perspectives on values in organizations* (pp. 175-204).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Vallerand, R. J., Mageau, G. A., Elliot, A. J., Dumais, A., Demers, M. A., & Rousseau, F. (2008). Passion and performance attainment in sport.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9, 373-392.
- Vallerand, R. J., Ntoumanis, N., Philippe, F. L., Lavigne, G. L., Carbonneau, N., Bonneville, A., Lagacé-Labonté, C., & Maliha, G. (2008). On passion and sports fans: A look at football. *Journal of Sports Sciences*, 26, 1279-1293.
- Vallerand, R. J., Salvy, S. J., Mageau, G. A., Elliot, A. J., Denis, P. L., Grouzet, F. M., & Blanchard, C. (2007). On the role of passion in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75, 505-534.
- Velicer, W. F., Eaton, C. A., & Fava, J. L. (2000). Construct explication through factor or component analysis: A review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 procedur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factors or components. In R. D. Goffin & E. Helmes (Eds.), *Problems and solutions in human assessment - Honoring Douglas N. Jackson at seventy* (pp. 41-71). Norwell, MA: Kluwer Academic Publishers.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idaman, K. F. (201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 H. Cooper (Ed.) *APA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psychology: Data analysis and research publication* (Vol. 3, pp. 361-39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Zhao, Y., St-Louis, A., & Vallerand, R. J. (2015). On the validation of the Passion Scale in Chinese. *Psychology of Well-Being*, 5, 1-11.
- Zwick, W. R., & Velicer, W. F. (1982). Factors influencing four rul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to retai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7, 253-269.

1 차원고접수 : 2015. 12. 11.

수정원고접수 : 2016. 03. 02.

최종게재결정 : 2016. 04. 18.

Validation of the Korean Passion Scale

Min Sung Hong

Yeseul Jung

Young Woo Sohn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was to translate and validate the Passion Scale developed by Vallerand and colleagues(2003) and modified by Marsh and colleagues(2013) in Korean. We conducted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sing the data sets of 118 and 200 undergraduate students respectively. Results provided support for the two-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Passion Scale consisting of Harmonious Passion (HP) and Obsessive Passion (OP), which had a better fit as compared to the one-factor structure. Support was also found for the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HP and OP scales using the combined sets of data (N = 318), based on such validity correlates as basic psychological needs, self-esteem, inclusion of self, and well-being related variables. Results from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o discriminate passion from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supported the four-factor model of HP, OP,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addition,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ed in the incremental validity of passion over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which suggests that the construct of passion is well discriminated from the motivation measures. Overall,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Korean Passion Scale is a reliable and valid tool for measuring the concept of passion. Finally,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 Passion, Harmonious Passion, Obsessive Passion, Passion Scale, Scale Validation